열린마당

관광과 지역경제를 잇다



오 선 아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관광도시 서귀포의 경제는 관광객의 발걸음과 연결돼 있다. 관광객이 줄어드는 비수기에는 식당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매출도 감소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진다.

관광객 유치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관광 비수기를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서귀포시는 원도심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억을 투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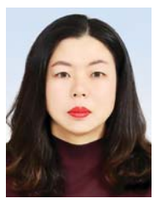
이중섭거리는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명동로는 야간관광 중심지로 육성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공간 조성, 상권 홍보와 마케팅, 상인과의 협력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야외테이블 시범운영과 영수증 이벤트 등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해 방문객이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인근 상점도 이용하도록 했다.

이처럼 관광자원에 지역 상인의 참여와 소비촉진을 연계하는 것은 관광과 민생경제를 잇는 방안이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관광과 지역 상권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광객의 방문이 소비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커피 한 잔 값이 주는 소상공인의 안심



정 경 숙
제주시 지역경제팀장

필자 역시 보험료 지출이 적지 않다.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이다.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

경제소상공인과에서 소상공인들의 폐업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무겁다. 폐업을 막을 해법은 없지만 불안을 덜어줄 방법은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62.0%, 2년 56.1%, 3년 45.9%로 낮아진다. 이때 필요한 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1인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정부와 제주시가 보험료를 지원해 부담도 줄일 수 있다. 7개 기준등급 중 2등급은 월 실부담액이 2340원으로 커피 한 잔 값 수준이다. 비자발적 폐업 시 요건을 충족하면 월 124만8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누구도 폐업을 바라며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을 막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재기의 버팀목이 된다.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감을 준다.

거리 곳곳의 임대 안내문과 소상공인의 불안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커피 한 잔 값의 선택이 더 큰 안심과 재기의 힘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한다.

밥상에 순위, 제주 급식의 불편한 성적표



강 호 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무상급식은 더 이상 특별한 복지가 아니다. 아이들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아이들의 밥상마저 지역별 순위와 예산으로 비교하는 현실은 씁쓸하다.

2026년 3월 기준 제주지역 급식 식품비는 초등학교 4220원으로 전국 5위, 중학교 4940원으로 4위, 고등학교 5250원으로 3위다. 하지만 초등학교 기준 대전과는 한 끼에 600원의 차이가 난다.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급식에 투입되는 비용부터 달라지는 셈이다.

식품비가 높다고 급식의 질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예산 증액 자체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실제 식단의 영양과 식재료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살펴야 한다.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 부담이 커지면 예산이 늘어도 현장 변화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제주가 전국 상위권이라는 사실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 무상급식의 목적은 전국 몇 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밥상은 행정의 성적표가 아니다. 지역별 순위를 자랑하기에 앞서 어디에 살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순위가 아니라 차별 없는 한 끼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위 지사 "지게차 작업 2인 1조" 요청

작업 전반 안전관리 주문

○…위성곤 제주지사가 잇따르는 지게차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인 1조 작업을 요청.

위 지사는 지난 31일 오전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작업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자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작업자들의 동선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에서 이를 점검할 눈이 필요하다"며 "그 눈이 없으면 사고 위험은 늘 높아진다"고 강조.

위 지사는 또 "사망사고가 두 번이나 발생한 만큼 지게차뿐 아니라 작업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잇단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 위영석기자

나무심기 대학생 봉사자 모집

○…제주시가 대학생들이 직접 나무를 심으며 도심 속 녹색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상도시숲 나무심기'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100명을 모집.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모두의숲'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하나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노형동 방일리공원에서 진행될 예정.

시 관계자는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이뤄지며, 포털 접속 후 '상상도시숲'이나 '무궁화'를 검색하고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며 "나무심기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크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사설

국회 예산 심의 착수… 국비 확보에 사활을

예산 정국이 시작됐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국비 확보를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예결특위는 4~5일 종합 정책질의에 나선다.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돼 예산안 증·감을 조정한다. 이어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12월 2일 확정된다. 전국 지자체들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착수 전부터 국비 확보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지사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예산심의 기간 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가동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전북도는 지역구 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회 상임위별, 지역구별 맞춤형 예산 전략을 마련했다. 타 지자체들도 국비 확보를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제주도 국비는 2조3481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들이 있다. 제주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공조체계를 갖춰 국비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로서는 국비 확보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의 관건이다.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국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파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려야 한다.

반복되는 지게차 사고,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제주에서 또다시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하나로마트에서 지게차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지 불과 넉 달 만이다.

지난달 23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축사에서 40대 배달기사가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아내와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반복되는 참사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더욱 안타깝다. 유가족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는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었지만 회사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지게차를 운전했다. 사고 당일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혼자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지게차 사망사고 이후 관계 당국은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했지만 넉 달 만에 또다시 노동자가 숨졌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일회성 점검과 사후 수습만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경찰과 고용노동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주도 역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게차 사용 사업장의 면허 보유 여부와 안전교육, 작업환경 등을 점검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과 위험한 단독작업, 과적 운송 등의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가족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 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성안교회 제동성 장로님께서 2026년 10월 31일 오후 6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빈 소 :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 양지공원
▶발인예배 : 11월 3일(화) 오전 6시 30분 (발인예배 장소: 제주성안교회 시온실)

집 례 류정길 위임목사
배우자 이봉희
아 들 제치영
아 들 제요한
딸 제수연

※ 연락처 : 제주성안교회
☏ 745-9191, 729-9191
H.P 010-2692-1595(경조부장)

주후 2026년 11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성안교회
당 회 장 류정길 목사
장례위원장 부창보 장로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광산탁공 영범(향년 7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11월 2일

배우자 김순덕
아 들 탁형욱
딸 탁태윤
지윤
며느리 김솜이
사 위 강영후
윤현철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산담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억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나장의사
616-08-85402